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3/21(月)자 夕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3/21(月) 06:00부터**

※ 문의 : 산업정책팀 최규종 팀장(02-6050-3381), 길민수 연구원(02-6050-3385)

주력 제조업체 87% “신사업 계획 있다”

- 商議, 13大 수출산업 300社 조사 ... 추진분야는 ‘ICT융합’(48%) > ‘신소재·나노’(29%) > ‘에너지’(26%) 順
- 진행은 느려 ‘검토단계’(57%)가 ‘착수단계’(23%)와 ‘제품출시단계’(11%) 보다 많아
-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 자금공급’(26%), ‘규제개혁’(21%) 등 필요
- 2/17 무투회의 발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도입 등 신산업 촉진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93%)

수출 주력산업에 속하는 기업 10곳 중 8곳은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드는 쇠퇴기 내지 정체기에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방안으로 ICT 융합, 첨단소재 개발 등 신사업 추진계획이 많았으나 초기단계에 불과해 성과 도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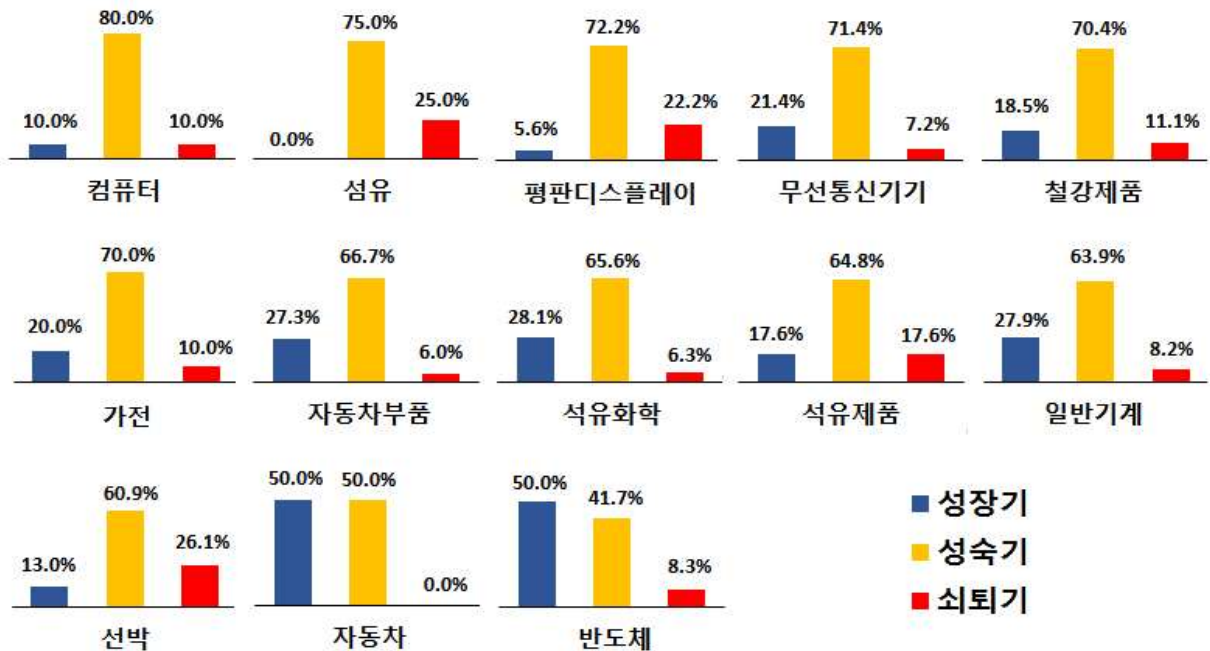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우리 수출을 이끄는 13대 주력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신사업 추진실태와 시사점’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6.3%가 주력제품의 수명주기에 대해 매출확대가 더디고 가격과 이익은 점점 떨어지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답했다. 매출과 이익 둘다 감소하는 쇠퇴기로 들어섰다는 기업은 12.2%였다. 반면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고이익을 거두는 성장기라고 답한 기업은 21.5%에 그쳤다. 새로운 시장이 태동하는 도입기라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었다.

* 가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 섬유,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제품,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 등 13대 주력 수출제조업

업종별로는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이 ‘컴퓨터’(80%), ‘섬유’(75.0%), ‘평판디스플레이’(72.2%), ‘무선통신기기’(71.4%)에서 많은 반면 ‘자동차’(50.0%)와 ‘반도체’(41.7%)는 적게 나왔다. 쇠퇴기라는 응답은 ‘선박’(26.1%), ‘섬유’(25.0%), ‘평판디스플레이’(22.2%) 순으로 높았다.

대한상의는 “섬유, 조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 뿐 아니라 시장이 포화되고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된 IT산업까지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있음을 나타낸다”며 “반도체, 자동차 산업도 후발국의 추격과 시장변화가 빨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림 1> 업종별 주력사업의 비즈니스사이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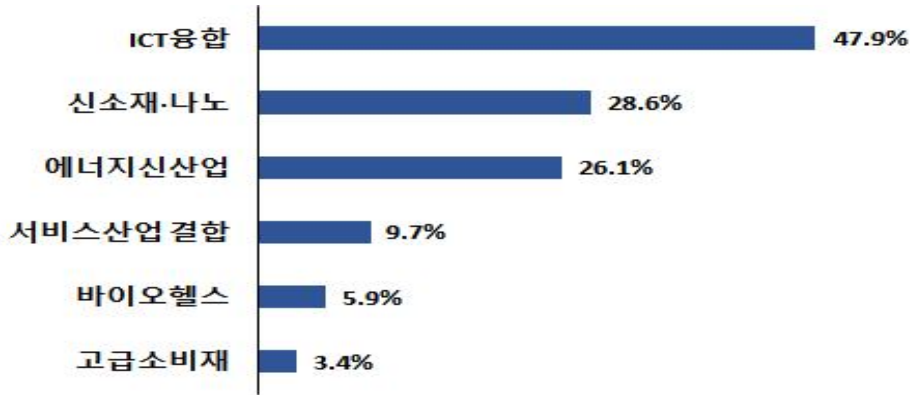


○ ‘신사업 추진할 것’ 87% ... 추진분야는 ‘ICT융합’(47.9%) > ‘신소재·나노’(28.6%) > ‘에너지’(26.1%)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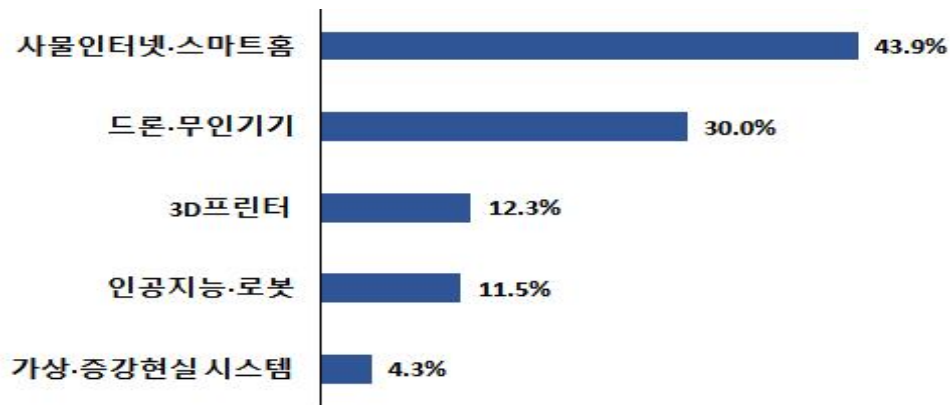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둔화에 대응하여 응답기업의 86.6%는 ‘신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 13.4%> 추진분야로는 기존 사업과 ‘연관된 분야(45.7%)나 ‘동일 분야(43.0%)라고 답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기 보다는 현재의 강점을 살리려는 경향이 강했다. <새로운 산업 진출 11.3%>

산업별로는 ‘ICT 융합’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신소재·나노’(28.6%), ‘에너지·신산업’(26.1%), ‘서비스산업 결합’(9.7%), ‘바이오헬스’(5.9%), ‘고급소비재’(3.4%) 등이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ICT 융합’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물인터넷·스마트홈(43.9%), ‘드론·무인기기(30.0%), ‘3D프린팅(12.3%), ‘인공지능·로봇(11.5%), ‘가상·증강현실 시스템(4.3%)을 들었다.

〈표 1〉 추진하고자 하는 신사업 분야 (복수응답)



〈표 2〉 추진하고자 하는 ICT융합 대상



○ 진행은 느려 ‘검토단계’(57%)가 ‘착수단계’(23%)와 ‘제품출시단계’(11%) 보다 많아 경쟁에 뒤처질 우려

하지만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도 대응이 초기단계에 불과해 앞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드러났다.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 검토단계’(56.6%), ‘구상단계’(9.3%) 등 시작단계에 있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 등 착수단계’(23.2%), ‘제품출시 단계’(10.5%), ‘마무리 단계’(0.4%)에 있는 기업보다 2배가량 많았다.

추진 방식으로는 64.8%의 기업이 ‘자체 연구개발’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외부기술 도입’(15.8%), ‘공동투자나 M&A’(9.9%), ‘전문연구기관과 제휴’(6.9%), ‘국가의 R&D사업에 참여’(2.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은 스마트로봇, 무인차를 비롯한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으며 중국도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며 “신산업은 시장선점이 중요한데 우리는 아직 적극적 대응이 부족해 경쟁에서 밀릴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표 3> 주요국 기업의 제조혁신 동향

일본	(소프트뱅크 社) · 일본 소프트뱅크사는 2015년 6월부터 개인용 스마트로봇 ‘페퍼’ 판매, 6개월만에 매진 · 최근에는 기업용 모델인 ‘Pepper for Biz’ 서비스를 개시, 500개 기업이 법인용 ‘페퍼’ 도입 · 소프트뱅크사의 사장은 “페퍼 하나로 모든 생활과 사업체계를 운영 가능하다”고 표현 (히타치제작소 社) · 히타치는 도시 철도 건설과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 철도건설로 인한 승객 증가량, 수익 변화 등을 시뮬레이션 가능
미국	(GE 社) · 제조회사인 GE는 SW융합을 통해 2015년 SW 부문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매출 달성 · 2015년 Predix Cloud 서비스를 발표해 다양한 산업분야의 효과적인 데이터처리를 지원 · 2020년까지 500억개 이상의 IoT제품을 생산하여 150억 달러 규모의 매출 달성 계획 (GM 社) · AT&T와 커넥티드카 관련 공동프로젝트를 진행, IT Innovation Center 건립 · 향후 3년간 커넥티드카와 LTE서비스지원으로 전세계 약 3억5000만 달러의 영업이익 창출 전망
중국	(알리바바 社) · 2015년 자사 상품을 무인으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 · 2020년까지 163억 달러를 투자해 무인기를 이용한 중국 내 화물 운송 네트워크 강화 (중커보양(中科博陽) 社) · 중국 난양시와 함께 약 100억 위안(1조 7000억원)을 투자해 ‘국제 드론마을’ 건설 프로젝트 진행 · 드론 연구개발센터, 드론 전문대학, 드론 슈퍼마켓 등이 들어설 예정

* 자료 : KOTRA Globalwindow를 참고해 재작성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회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평균적으로 32.5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응용연구’(12.8개월)와 ‘시제품 제작’(10.1개월), ‘출시제품 제작’(9.6개월) 기간을 합한 수치이다. 기업들이 신산업을 추진해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데 적어도 2~3년이 걸릴 것임을 시사한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대한상의 자문위원)는 “최근 산업트렌드를 살펴보면 과거 원가 절감 등 가격경쟁이 주가 되던 시기를 지나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첨단기술 경쟁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어 고부가가치 융합분야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이고 속도감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사업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는 ‘안정적 자금공급’ ... 정부 신산업 촉진방안 ‘도움된다’(93%)

신사업 추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절반가량의 기업이 ‘불투명한 수익성’(49.5%)을 꼽았고, 이어 ‘관련 기술과 노하우 부족’(21.8%), ‘장기전략 부재’(15.8%), ‘미래정보 부족’(11.9%) 등을 차례로 들었다. <기타 1.0%>

불안요인으로는 ‘시장트렌드의 급속한 변화’(40.6%), ‘불확실한 대외여건’(39.6%), ‘해외선도기업의 기회선점’(8.9%), ‘금융시장의 혼란’(7.9%) 등을 꼽았다. <기타 3.0%>

한편 신사업 추진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안정적 자금공급’(26.1%)을 주문한 기업이 많았다. 이어 ‘규제개혁’(20.5%), ‘시장형성 및 선점을 위한 테스트베드 활성화’(17.8%), ‘사업재편과 M&A 등 자발적 구조개선 지원’(17.2%),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 배출’(11.2%)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타 7.2%>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지난 2월 17일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신산업 투자 지원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신산업 관련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하고 R&D, 인력, 금융·세제, 판로·입지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정부의 신산업 지원방안이 투자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 대다수가 ‘도움이 된다’(92.8%)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에 그쳤다.

투자 확대 분야로는 ‘R&D’(51.6%)를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고 ‘시설·장비 등 인프라’(37.1%), ‘해외시장 개척’(25.3%), ‘자동화·정보화’(9.7%), ‘인력 양성’(7.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복수응답> 아울러 신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도 64.7%로 나타났다. <그럴 의향 없다 35.3%>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들이 신산업시장에 대해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규제를 풀어 투자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노동개혁을 이행해 사업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규제를 정비해 기업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사 개요>

- ☐ 조사기간 : '16. 2. 19 ~ 2. 29
- ☐ 조사대상 : 국내 13대 제조업 300개社
- ☐ 조사방법 : 전화 및 팩스